대구광역일보

since 1996 28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2024년 8월 6일 화요일(火) | 제5439호

경북 출생아↓ 여성들이 떠났기 때문…

2015년 기준 지난해까지 출생율
경북의 출생아 수 감소율 54.3%
전국 평균 47.5%보다 6.8%높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여성의 마음부터 얻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경북 출생아 급감원인은 여성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18회차)'에서 나온 말이다.

경북도는 5일 기존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를 격상해 전문가 제안·토론 중심의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이철우 경북지사,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기존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인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경북연구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저출생 전문가로 나선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북의 선택'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정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행복하거나 주어진 삶에 적응할 때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다"며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도달해도 삶의 만족도가 낮은 '불일치',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박탈'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출산주체로서 여성의 경험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요인"이라며 "엄마의 독박 육아와 경력단절, 아빠의 부양부담 해소 등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이 비용 지원과 함께 가야만 저출생 현상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까지 경북의 출생아 수 감소율은 54.3%로서 전국 평균 47.5%보다 높았다.

출생아 수 감소 폭이 큰 이유에 대해 정 대표는 "같은 기간 20~34세 여성 인구 수 감소율은 전국 평균이 8.2%이나 경북은 24.5%로 전국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여성청년 유출"이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대기업 본사 등의 지방 이전,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노동 방식으로의 혁신적인 변화 등으로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만큼의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먹거리 공동체, 교육 공동체, 일자리 공동체, 돌봄 공동체, 복지 공동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중장년, 노인, 가족의 이동을 유도해 인구 이동의 나비효과를 경북에서 일으키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는 인구 위기를 맞기 전에 가족 위기부터 마주했다"며 "공동체의 회복과 삶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차 많아질 때 출생률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현장 의견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 대책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한민국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도,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레벨 협의체'로 가동한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계획 수립과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대책' 국가 사업화 △여성 친화 경북 등 저출생 극복 심화 전략 마련 △저출생 대응 관점,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도는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 등 저출생 극복 단기 대책 선도에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선다. 김성용 기자

사진은 남자 그랑프리 미들급(-85㎏) 장효영씨 여자 그랑프리(+165㎝) 배도의씨〈사진=경주시제공〉

2024 미스터경북 선발대회 경주서 성황

2024 미스터경북 선발대회가 성황리 종료됐다.

대회는 지난 4일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2022년 이후 2년 만에 지역에서 다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경북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고 경주시보디빌딩협회가 주관했다.

종목은 19세 이하 3체급, 마스터즈 1체급, 일반부 8체급, 클래식 보디빌딩 2체급 등 14체급을 비롯해 남자 피지크 2체급과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 2체급, 여자 레깅스 핏 2체급으로 나눠 각각 진행됐다.

대회 최우수선수에는 남자 그랑프리 미들급(-85㎏)에 장효영(상주시보디빌딩협회), 여자 그랑프리(+165㎝)에 배도의(비키니피트니스)씨가 각각 차지했다.

펄펄끓는 더위 사람 죽고 단수 사태 발생

군위서 온열질환추정
70대 첫 사망자 발생
청도 일부 지역 단수
사용량, 생산량 초과

펄펄 끓는 더위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계속된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늘면서 청도군 일부지역이 단수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불볕더위로 주말 사이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올해 들어 폭염에 따른 사망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군위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5일 대구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55분께 군위군 의흥면의 한 참깨밭에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군위경찰서는 A씨가 홀로 밭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가 숨진 당일 대구는 낮 최고기온 36도를 기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시는 폭염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온열질환자 발생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고령농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등 3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온열질환자 발생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대책에 대해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청도군 일부지역에 단수조치가 내려졌다.

5일 청도군 물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부터 이날 오전 7시 현재까지 각남면, 풍각면 등 고지대 일부 지역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물관리사업소는 전날 오후 9시 46분께 이런 내용을 알리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이는 청도군 전체 물 사용량이 폭염의 영향으로 지난 2일부터 생산량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청도군에 따르면 물을 공급하는 운문정수장의 하루 최대 생산량은 2만1000ｔ인데 지난 2일부터 군 전체 물 사용량이 생산량을 넘어섰다.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배수지에서 공급된 물을 가압장에서 끌어올려 물을 공급하는 일부 고지대 지역에 단수가 됐다.

군 관계자는 "비상조치로 단수된 지역에 물병을 공급했으며 급수차를 동원해 급수 공급할 예정" 이라며 물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일까지 올해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질환자는 1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많다.

이들 1546명 중 남성은 1204명(77.9%), 여성은 342명(22.1%)이었다.

온열질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었는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31.4%(485명)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61명, 전남 198명, 경남 184명, 경북 160명의 순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질병별로 나누면 열탈진(824명)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363명), 열경련(206명), 열실신(129명) 순이었다.

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29.6%), 논밭(15.9%) 등 실외(79.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여은 기자

홍준표, 양궁처럼… "정치도 감동줘야"

페이스북 한국 양궁
전 종목 금메달 극찬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5일 "단독 강행 통과,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대통령이 휴가 가는데도 증오 성명이 나오는 '저주의 정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모두가 한마음이 된 한국 양궁의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정치도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양안 사태에 북핵위기까지 극도의 안보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 경제안보도 시급하다"며 "그런데 눈만 뜨면 서로 증오하는 말들만 쏟아내니 임진왜란 직전 동인, 서인 당쟁이 재현된 것 같다"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또 "모든 것을 국익(國益) 중심으로 판단하고 집행하면 될 텐데 모든 걸 진영논리를 중심으로 패거리 지어 몰려다니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니 이 암울한 사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찜통더위보다 더 짜증 나는 한국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리올림픽 양궁 전 종목 금메달 획득의 주역인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를 언급하면서는 "강철 마인드"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홍 시장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정치판에 오로지 파리올림픽 소식만 이 나라를 희망에 부풀게 한다"며 "어제 있었던 남자 개인 양궁 결승은 참으로 짜릿한 승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지막 슛오프 때도 흔들림 없는 김우진 선수의 강철 마인드는 우리를 감동케 했다"며 "모두가 한마음이 된 한국 양궁의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켰다"고 덧붙였다. 조여은 기자

명실상주몰 추석맞이 풍성한 할인 행사 듬뿍

우수한 농특산물 합리적
가격으로 조기마감 예상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명실상주몰(https://sjmall.cyso.co.kr)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여름과 가을사이인 8~9월은 말복과 입추, 추석이 있는 시기로 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다양한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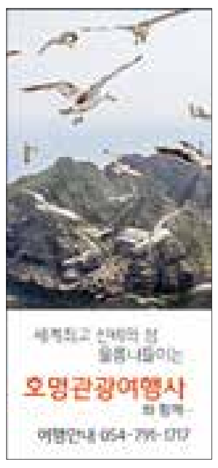
시는 소비자의 부담은 줄이고 취향껏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 종합선물셋트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두달간 진행한다.

명실상주몰 8월 이달의 농가 행사(8월 1~31일)를 시작으로 △우수 축산물 기획전(8월5~18일) △추석맞이 전상품 할인 (8월19~9월15일) △수요특가 행사 수상하데이 기획전 △2024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 기념 기획전(9월23~10월6일)을 연다.

상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명실상주몰을 애용하는 고객의 경우 경북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 등급별 할인 쿠폰 발행을 통해 더욱 시원한 가격에 쇼핑을 즐기고 구매실적도 챙길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우수 농특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는 지역이다. 명실상주몰은 이런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백화점과 같은 곳으로 소비자가 취향껏 선택할 수 있는 쇼핑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명실상주몰의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고, 마음을 가득 담은 농산물로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란다. 다가오는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에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단체장 일정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이 최근 경주시의회에서 열린 경북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6일 오후 명륜동 일대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효자손 사업을 진행한다.

2025 APEC정상회의 경주 유치

수성구,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 진행

수성구청은 지난 1일 수성여성클럽에서 행복수성 구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구민참여단에 구정 정책 제안, 공공 홍보물 모니터링 등 구민 대표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향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이번 강의는 '행복수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성역할·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구민참여단의 역할 △평등을 위한 실천방안 찾기 등을 살펴봤다. 특히 성인지 관점을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사업을 이해하고, 지역 정책 파트너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어 교유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폭염 경보' 지속 발효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

대구시는 폭염경보 발효 20일째 열대야 지속 중 실·국장 및 9개 구·군 피해 최소화 긴급 대책회의

대구시는 폭염경보 20일째 발효중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일 기준 대구 온열질환자는 32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명이 늘었고, 전국은 154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명이 늘어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시는 온열질환자 발생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고령농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등 3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온열질환자 발생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대책에 대해서 긴급 점검하고,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는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예찰 및 건강관리 강화 방안과 폭염경감 시설 전면 가동, 마을방송 및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방법, 주요 야외 건설현장의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폭염취약시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물, 그늘, 휴식) 안내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고령 농업인에 대한 폭염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취약계층인 취약노인을 위해 생활지원사 1884명을 통해 안부 전화 지속 실시, 무더위쉼터 1589개소에 대해서는 에어컨 가동상태 및 적정온도(26~28℃) 유지 상태 등을 수시 점검 및 전면 개방하도록 했다.

폭염경감시설 2399개소의 전면 가동, 도로열섬 완화를 위한 클린로드 및 도로 살수차 확대 운영과, 체육 관련행사 폭염대책 마련, 농업인 대상으로 마을방송 및 재난문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구시 13개 부서에서 운영 중인 폭염대책 TF팀을 체육 및 도시안전부서 2개 부서를 추가한 15개 부서로 확대 운영하고, 재난안전실장 및 소관 부서장에 대해 온열질환자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폭염 대비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들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와 구·군,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농업인과 기저질환자의 온열질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폭염취약시간대(14시~17시)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예찰 및 홍보를 강화해 달라"며 "특히, 고령농업인과 건설사업장 야외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립도서관, 제6회 디카시 공모전 개최

'달성, 시로 물들이다'란 주제로 1인당 최대 2개 작품 출품 가능

달성군립도서관은 '달성, 시로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디지털문학의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문학 장르로 떠오른 디카시를 공모한다.

'디카시'란 디지털카메라(디카)와 시의 줄임말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사진의 시적 형상에 대한 것을 짧은 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디카시 공모의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과 성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달성군의 인상 깊은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그에 어울리는 시적 문장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접수하면 되며, 1인당 최대 2개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해 9월 말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10명 등 총 25명을 선정해 달성군수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한다.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전화(☎053-584-0284)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www.dalseonglib.kr/)를 참조하면 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달성군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디카시라는 새로운 문학적 표현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회와 함께, 8월에는 디카시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스마트폰으로 찍고 쓰는 디카시라는 주제로 오는 7일, 14일, 21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박윤배 대구디카시인협회장과 정왕부 스마트폰 사진 전문강사를 초청해 디카시에 대한 이해와 스마트폰 촬영 기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동구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순항

지역민들에게 친숙한 '불로고분군'이 소재한 대구 동구 불로동 노후주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불로동은 전체 주택 중 20년 이상 된 건물이 68%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대구 동구는 2023년부터 불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불로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사업은 불봉이 집수리 협동조합이 맡아 진행했다.

이들은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총 41가구를 선정해 방수, 창호, 도장, 대문, 옥외문, 단열공사, 지붕 공사 등을 했다.

지난달 29일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사업' 현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동구는 앞으로도 불봉이 집수리 협동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을 통해 불로동 일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마을경관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불봉이네 봉사단으로 시작한 불봉이 집수리 협동조합은 2020년 집수리 역량 강화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웠으며, 2021년 불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집수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봉이 집수리 협동조합으로 발돋움했다.

이후 가스, 보일러, 전기,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함께하며 불로동 각종 시설 수리 및 유지보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미경 기자

군위군, 가족 뮤지컬 '알사탕' 공연

그림책 작가 백희나의 원작 감성 그대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 뮤지컬 '알사탕'을 오는 13일 오후 7시에 무대에 올린다.

뮤지컬 알사탕은 한국인 최초로 2020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 백희나의 동명 소설을 그린 그림책을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된 작품이다.

제 마음을 표현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데도 서툰 어린이가 구슬 대신 사게 된 신비한 알사탕으로 인해 벌어지는 신기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뮤지컬 알사탕은 2019년 초연부터 3년 연속 아동·가족 부분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백희나 작가 특유의 재치 있는 대사와 따뜻한 감성을 그대로 담아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군위 지역 어린이들은 물론 여름방학을 맞이해 군위 지역을 찾은 많은 어린이에게 큰 즐거움과 공감, 용기, 성장의 마법을 일으켜 주리라 기대된다.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www.gunwi.go.kr) 또는 054-380-7212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

군위, 산림병해충 드론방제

군위군은 농림지에 대한 돌발해충 현장예찰을 통해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군위군 관내 돌발해충의 발생정도가 심각함을 확인했다.

이에 군위군 전 지역에 지난 1일부터 8월말까지 드론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이번 방제는 총 30ha 규모로,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를 통해 농경지와 인접한 산림 내 서식하는 돌발해충을 농경지와 동시에 방제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군위군의 대표 임산물인 대추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공살포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PLS(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한다.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돌발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은 수액을 빨아 먹고 과실의 그을음병, 수세약화 등을 야기해 농산물과 임산물의 상품성을 저해시킨다.

또한 돌발해충은 방제 후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 산림지 방제 시 인접 농경지를 함께 방제해 조기에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군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채용해 선제적인 예찰 및 방제활동을 시작했으며, 6월부터는 지상방제 및 항공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대구향토역사관, 대구근대역사관 유물 공개 구입

더 커진 대구 역사문화 관련 자료 확보 통해 전시. 교육 연구 자료 활용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향토역사관과 대구근대역사관에서는 중요 유물을 구입하여 전시 및 학술연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 유물 공개 구입을 진행한다.

올해 대구향토역사관과 대구근대역사관은 각 관의 성격과 운영 방향에 맞는 유물을 구입한다.

먼저 달성공원에 위치한 대구향토역사관은 대한제국 전까지 대구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인물, 정치·사회·경제·문화·민속 관련 자료를 구입한다.

또한 달성공원과 대구 달성(토성), 대구신사, 대구부립(시립)박물관(1947년~1959년), 1969년 달성문화관 준공이후 1997년 대구향토역사관 개관까지 관련 자료 등을 구입한다.

경상감영공원에 위치한 대구근대역사관은 대한제국 이후 대구 관련 자료를 구입한다.

특히 대구 독립운동사 및 대구감옥(대구형무소) 관련 자료, 대구의 역(驛)과 대구지역 철도 관련 자료, 대구비행장 관련 자료, 대구지역 일제 강제동원 및 침탈 관련 자료, 그리고 대구 사회·경제·문화 관련 자료 등을 구입한다.

유물 매도 희망자는 대구향토역사관, 대구근대역사관 누리집에서 공고문에 안내된 '유물매도신청서' 등의 서류를 내려 받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박물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유물은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심의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소속 박물관 홈페이지 화상 공개로 불법 문화재 여부 검증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구입할 방침이며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소장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대구시 공립박물관 3개관을 총괄하고 있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신형석 박물관운영본부장은 "올해도 대구시 소속 공립박물관에서는 공립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구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유물 공개 구입을 진행하는데, 유물 소장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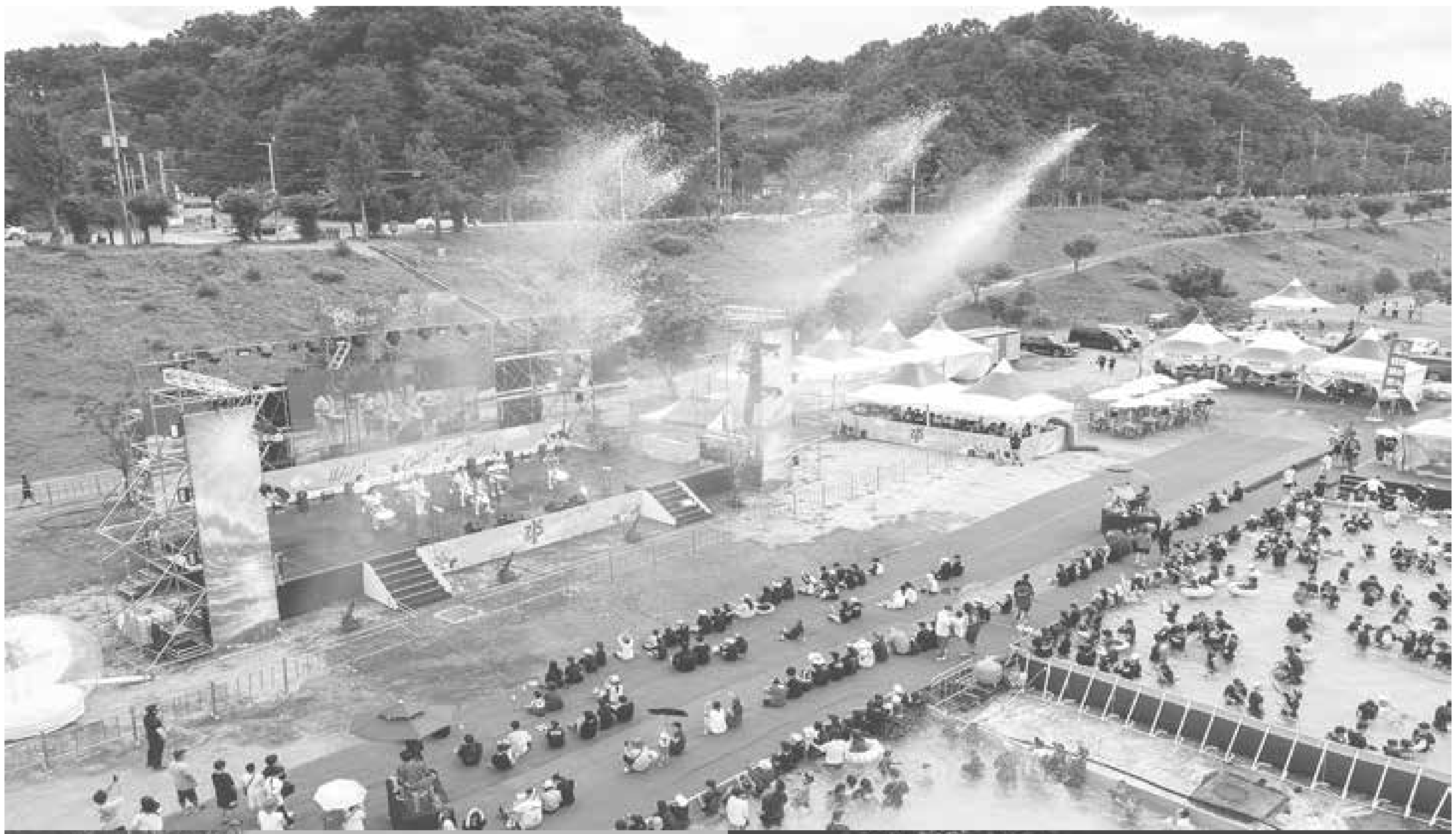
강한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신문화 수도 안동 매력… 폭염도 고개 숙였다

안동 水 페스타-월영야행 축제
총 30만여 명 관광객 안동유치
여름 피서지 급부상 계기 마련
낭만적 야경 볼거리 환호작약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매력에 용광로 더위도 고개 숙였다.

관광객들은 낭만적인 낙동강의 야경과 볼거리에 환호작약 했다.

2024 안동 수(水)페스타와 2024 안동 문화유산 야행이 롱런흡런을 때렸다.

신나는 물놀이와 화려한 공연으로 시민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줬다.

▣2024 안동 수(水)페스타

'2024 안동 수(水)페스타'가 화려한 불꽃놀이를 끝으로 9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지난 4일 아쉬움을 뒤로하고 막 내렸다.

축제는 '핫 여름! 쿨 안동!'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7~8월 4일까지 성희여고 앞 낙동강변에서 열렸다.

10만 50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았다.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여름철 물놀이와 공연프로그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름축제를 시민에게 성공적으로 선보인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 첫날, K-POP 콘서트 공연이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구름인파는 열광했다.

K-POP 콘서트 공연을 시작으로 DJ PARTY, 수(水) 트롯 콘서트, 대학 가요제인 수페스타K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축제 마지막 날은 그야말로 인기폭발이었다.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강을 바라보며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근 채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피서법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았다.

여름물축제에 접목시킨 퓨전국악 밴드의 국악락페스티벌 공연 '풍류樂동'을 선보였다.

더위를 날려버릴 대형 튜브슬라이드와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시설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대형 풀장에서 진행되는 단체 물총싸움인 물총대전 등 물놀이 프로그램과 낙동강 수상에서 즐기는 패들보드 체험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최근 물놀이 트렌드를 반영해 무대 앞 객석을 없애고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동시에 무대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수중객석을 조성, 물놀이객들은 좋아했다.

유료로 운영된 프리미엄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기에 인터넷 사전예약이 완료됐다.

뜨거운 반응을 보여 이번 축제에 새롭게 선보인 콘텐츠는 성공적이었다.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를 축제장 앞까지 회차 운행했다.

주차·축제장을 오가는 셔틀열차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개막식 등 의전행사를 과감히 없앤 점과 먹거리부스의 저렴한 음식 가격, 모든 물놀이시설을 무료로 운영한 점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같은 기간 월영교 일대에서 열린 월영야행 행사장과 성희여고 앞 축제장을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두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낸 결과 축제기간 총 30만여 명의 관광객을 안동에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여름 휴가기간 안동을 방문하면 물축제인 안동 수(水)페스타와 문화유산 야행인 월영야행, 선유줄불놀이 등 안동에서 경험할 수 있다.

결국 안동이 타지역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름 피서지로 급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축제기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했다.

어쨌든 9일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며 특별한 여름 추억을 선사했던 안동 수(水)페스타는 막을 내렸지만, 낙동강변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는 18일까지 운영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젊고 활기찬 안동을 보여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로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 안동 문화유산 야행

2024 안동 문화유산 야행(이하 월영야행)이 큰 호응 속에 서 막 내렸다.

지난달 26~8월 4일까지 10일간 20여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월영교를 다녀갔다.

월영야행은 안동의 유·무형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여름밤 달빛 아래 많은 이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월영교의 전통등간과 관풍정 연못의 LED 하회선유줄불놀이, 월영교 은행나무길에 조성한 하회탈 MBTI 조명거리, 월영야행 마스코트 월영이와 곳곳에 설치한 대형달 조형물 등은 월영교 일대를 다니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평일에도 프로그램을 구성,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콘텐츠와 먹거리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연령·공간·타깃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골고루 즐길 수 있었다.

개목나루 무대에서 진행된 역사 퀴즈 프로그램 월영별과는 안동의 장원급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색체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선성현객사에서 펼쳐진 캔들라이트 국악 콘서트와 석빙고 개방 및 해설사 배치는 안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하회별신굿탈놀이와 놋다리밟기 공연, 탈놀이단 공연 등이 펼쳐져 함께 안동의 전통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월영야행을 찾아주신 시민과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됐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안동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의미 있는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수준높은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5개월 만에 300건대 무너져

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5개월 만에 300건 아래로 추락했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사실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에서 지난 6월 대구의 분양권 거래량이 251건으로 전월(345건)보다 27.2%(94건) 줄어드는 등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2월 300건 이후 월 300건대를 유지하던 거래량이 5개월 만에 200건대로 다시 떨어졌다.

거래량은 중구가 66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달서구 61건, 동구 34건, 수성구 26건, 서구 25건, 북구24건, 남구13건, 달성군 2건 순이다.

2025 세계대표자 대회 안동 개최 확정

내년 4월 수출상담회 열려 3박4일간 회원 800명 참가

2025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의 개최지가 안동으로 확정됐다.

행사명은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이다.

내년 4월 중 3박 4일간 개최된다.

행사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주최한다.

세계대표자대회는 약 800여 명의 World-OKTA 회원 및 차세대, 국내외 기업인,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이는 행사다.

해외 지회별 대표자 역량 강화 및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지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해외 한인 경제인과 국내 지자체 간의 투자 및 관광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대표자대회는 해외 한인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수출 판로개척의 장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국제 행사를 통해 안동의 우수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참가자들에게 안동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상담회로 중소기업들의 세계적인 판로개척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행사 준비를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마련, 지역기업과의 협력으로 상생의 장을 마련한다.

OKTA는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전 세계 67개국 146개의 지회에 7000여 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 1000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다.

단체는 모국의 경제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송명주 기자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와 아버지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갓난아기도 즐기는 워터파크 '호평'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영유아 전용 물놀이장 체험행사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지난달 27일 첫돌이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부터 7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전용 물놀이장 무료 체험 행사를 개최, 부모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유아 전용 물놀이장은 워터파크와 야외 물놀이장 이용이 어려운 영유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위해 마련했다.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수심이 얕아 막 걸음마를 뗀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전용풀장' 4곳을 설치했다.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수시로 물을 갈아주고, 자원봉사자를 상시 배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추억과 동심을 자극하는 봉숭아 물들이기는 물론 열쇠고리와 목걸이 만들기 체험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이어지자 내달 10일에도 영유아 전용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이날 11개월 된 아이와 함께 물놀이장을 찾은 김혜진(석적읍·28) 씨는 "그동안 어린이와 달리 영유아가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없어 아쉬웠다. 유아 전용 물놀이장에서 아이가 물놀이 삼매경에 빠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명신 관장은 "영유아 물놀이장이 아이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복공간으로, 아이와 함께 나온 부모님은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됐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신체적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간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구미시- 베트남 우호관계 더욱 '굳건'

구미시 새마을 해외시범마을 조성단지사업 박닌성 협조…

김장호 시장을 단장으로 한 구미시 대표단 일행(이하 '대표단')이 국제우호도시 베트남 박닌시(Bắc Ninh)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6~9일까지 3박 4일간 박닌시를 방문한다.

방문은 박닌시 독립 70주년을 축하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한다.

대표단은 6일, 박닌시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국제행사 홍보, 문화 예술 교류 확대, 글로벌 인재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7일에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인 구미시 새마을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닌성 정부 관계자와 함께 사업 대상지인 보껑동 화딘마을 현장을 시찰한다.

박닌시 최대 직업대학인 박닌산업대학을 방문,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인재 유치에 대해 박닌산업대학 총장과 면담을 한다.

박닌산업대학과 금오공업고등학교(마이스터고) 간 국제 교류 협약식에 참석한 후,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양국 학생들을 격려한다.

대표단은 박닌시 최대 규모 기념행사인 '박닌시 독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베트남 국가 지도부 및 박닌시 정부 관계자, 박닌시 해외우호도시 관계자 등 1000여 명과 함께 독립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다.

8일에는 현지 진출 기업을 방문하고 베트남 정부 관계자 및 현지 한인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기업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 구미기업이 베트남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박닌성 성도(成都)인 박닌시는 면적 82.6㎢에 인구 28만 명의 도시다.

베트남의 전자, 첨단기술산업의 중심지역으로서 16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진출 구미기업 44개사 중 19개사가 박닌시에 법인을 두고 있다.

시는 2022년 10월 19일 박닌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양 도시 경제교류회 개최한다.

구미시 새마을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 박닌시 보껑동 화딘마을 선정, 합동문화 공연 개최 등을 통해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송명주 기자

육상 선수단, 예천곤충생태원서 휴식

육상 국가대표 후보·청소년·꿈나무 전지훈련단 예천곤충생태원 방문

예천군에서 전지훈련 중인 육상전지훈련선수단이 2일 예천 대표 관광지인 곤충생태원을 방문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육상 단거리·도약 국가대표 후보, 청소년·꿈나무 선수단 160명과 지도자 26명은 예천 스타디움에서 훈련 중이다.

군은 고된 훈련으로 지친 선수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육상을 책임질 선수들에게 예천을 알리기 위해 탐방 행사를 추진했다.

선수단은 전국 최대 곤충 테마시설인 생태원에서 나비터널과 체험온실에서 곤충과 교감하는 등 강도 높은 훈련으로 피로해진 심신을 달래고 3D영상관, 멀티체험관 등의 각종 놀이시설도 즐겼다.

이호종 곤충연구소장은 "장차 우리나라 육상의 미래를 짊어질 선수들에게 예천의 자랑을 선보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꼭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 예천곤충축제는 오는 15~18일까지 4일간 예천곤충생태원과 한천체육공원일대에서 열린다. 송명주 기자

상주시,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경로당 점검

폭염 취약한 어르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낼수 있게 최선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가축도 숨 쉬기 힘들어한다. 때문에 상주시 화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여름철 경로당 폭염에 대비하여 관내 경로당 18곳을 방문,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화동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은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더운 시간대 외출 피하기 △물 자주 마시기 △통풍이 잘되는 옷 입고 양산 쓰기 △식중독 예방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폭염 대처요령 안내문을 나눠드리며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화동면 노인회분회 이광현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경로당 회원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직접 방문해 고맙다. 항상 경로당에 신경써주어서 여름을 잘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형석 화동면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지친 어르신들이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쉼터를 조성,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편사항을 해소,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흥동도 폭염 집중대응에 나섰다.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부터 폭염 집중대응 기간 종료시까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17곳을 순회,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했다.

점검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실시했다.

신흥동은 △경로당 내 냉방기기 충분한 가동 여부 △노인회 회원 외 경로당 이용 허용 △경로당 개·폐 여부 및 연장 운영 준수 △개방 안내문 부착 △폭염대비 행동 요령 등을 설명하며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으며 폭염 시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할 것을 안내 했다.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더위 시간(오후2~5시)에는 밭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이경호 기자

남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경산시 남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남천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3분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2분기 활동보고 및 2024년 함께모아 행복금고 연합 모금사업 추진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냉장고 정비지원, 이불빨래 지원 사업 등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남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분기 사업으로 영양가득 건강 선식 나눔사업 추진,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전달했다.

추가 사업으로 물김치 나눔 사업은 8월 중으로 추진한다.

백운성 위원장은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복지 특화사업을 추진, 회의를 통해 논의된 세부 내용들을 반영,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더욱 고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향 남천면장도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양 가득한 선식을 지원받은 가구가 더위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남천면은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 발굴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문경청소년문화의집 토요진로체험 운영

문경시는 희망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2층 커피공방에서 카페체험 컵빙수 만들기 토요진로체험을 진행한다.

8월 토요진로체험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도, 청소년이 기획하는 체험이다. 8월은 카페체험으로 무더운 여름을 겨냥, 만들기 쉬운 컵빙수를 주제로 선정했다.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는 체험으로 참여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지난 2월 청소년 진로체험으로 바리스타과정을 거쳐 3월부터 매달 토요체험을 진행, 다양한 체험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송희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올해 매달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방학추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문경청소년문화의집은 정기적으로 주제가 있는 진로체험을 기획하고 있다. 청소년 진로체험은 토요진로체험, 가족진로체험이 월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지원사업으로 4명이상이 모이면 체험이 가능한 공모형 진로체험도 있다.

(문의: 550-6657 / 화~토, 월요일 휴관)

2025 APEC 세계 최고 정상 숙소 태부족… 발등에 불

각국 정상급 이상 VVIP 배정할 숙소 17개 불과 경주시, 일부 리조트에 대기업회장 소유 PRS급 버금가는 숙소개조사용 주낙영 주요시설 점검…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산더위'에도 무척 바쁘다.

연일 지속되는 역대급 폭염에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최고 정상을 위한 PRS(Presidential Royal Suite)급 숙소다.

32차 APEC 정상회의를 1년여 앞둔 경주에 일반 숙소는 충분하지만 PRS급 숙소가 부족하다는 실무자들의 조사결과가 나온 탓이다.

때문에 경북도와 경주시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경북도와 외교부의 실무사전실사단은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개최 회의장 및 숙박시설, 오·만찬장 등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점검에서 "당장 행사를 개최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다른 시설들은 잘 갖춰줘 있으나 세계 최고 정상들이 머물 최고급 숙소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PEC 회원국은 21개국.

이들 회원국의 정상만 참석해도 당장 21개의 최고급 숙소가 필요하다.

각급 정상을 비롯 각료와 기업인 'VVIP'급 손님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최상위급 숙소에 대한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정상들 묵을 숙소 이상 없나

APEC 정상회의의 주행사가 열리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기준 3㎞ 이내에는 호텔 리조트 등 12곳에 3497개의 객실이 확보돼 있다.

각국 정상급 이상 'VVIP'들에게 배정할 숙소는 17개에 불과하다.

범위를 넓혀 경주시내 40분 이내 거리에는 숙박시설 15곳에 1305개의 객실이 있다.

PRS급은 4개 뿐이다.

현재 경주시가 확보할 수 있는 PRS급 숙소는 21개인 셈이다.

경주시는 추가 재조사를 통해 PRS급 숙소 확보에 나섰다.

당장 새로 지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존 대기업 회장 소유 리조트나 별장 등을 물색하거나 스위트룸 등을 정상급 인사들이 묵을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북도는 "일부 리조트에 대기업 회장 소유로 PRS급에 버금가는 숙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측은 물론 외교부 등과 협의해 정상급 숙소로 활용하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폭염 속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 점검에 이어 5일 지역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관리 요원과 해수욕장 번영회, 의용소방대, 바다시청 근무자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도는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해 기존 객실을 개조해 정상급 숙소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주보문관광단지 안에 정상급이 머물 숙소 가운데 코모도호텔의 프리지던트 박(1114호) 객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곳으로 APEC정상의 숙소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주 개최장소인 보문관광단지를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로 지정해 경주를 대한민국 관광의 발상지로 만든 주인공이다.

L호텔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방도 PRS급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오는 9월 행안부로부터 조직승인을 받아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을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 주낙영 주요시설 점검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4일 주말을 맞아 경주보문관광단지 일대 APEC 정상회의 주요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동협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최재필, 이경희, 박광호, 정종문 상임위원장과 이락우 APEC특별위원장 등 30여 명도 함께 동행했다.

점검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정부 합동실사단 현장 방문을 대비해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시설 활용 방안과 보문단지 내 주요 숙박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정상회의장 주변 시설 인프라를 비롯한 국비지원 사업현장 등 각 부문별 준비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정상회의 개최시기, 정상용 객실 활용 및 시설 리모델링, 사전예약 처리 등 정상회의 개최 준비와 관련해 숙박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전시장 설치 및 공연장 활용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주변 주차시설 보강, 보문단지 내 도로 인프라와 보행환경 개선, 도시 경관과 교통편의시설 개선 사업 등 주요 APEC 사업과 관련해 개최도시로서 시설 활용 방안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경주가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은 시민 모두의 노력과 간절한 염원 덕분"이라며 "다가오는 경주 APEC이 역대 최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고,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천년고도 경주가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경주가 한 단계 도약, 성장,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사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지난달 8일 APEC 정상회의준비지원단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APEC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필수 불가결한 정부 예산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정부 합동현장실사와 외교부 준비기획단 업무 양해각서 체결을 거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오는 9월 준비지원단 정식 조직 출범과 함께 시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협력조직을 구성한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국회 차원의 APEC 특별위원회 구성,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역대 최고 정상회의 개최

경북도가 32025 APEC 정상회의를 역대 최고의 경제·문화 회의로 개최한다.

경주의 숙박시설은 보문단지 주회의장 반경 3km 이내에 103개(4463실), 10km 이내에는 1333개(1만3265실)가 있다.

보문관광단지 내에는 특급호텔뿐 아니라 한국적 형식을 갖춘 초특급 숙박시설과 컨벤션 기능, 한방, 다도 등의 체험시설 및 집무실, 화상회의 시설 장비를 갖춘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주영 회장 등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주역이 머물던 숙소도 그대로 잘 보존돼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진입도로 및 교통시설 환경 개선, 편의시설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 회의가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행사 후에는 APEC 기념공원 조성, APEC 개최 기념관 건립, 경북연구원과 협업해 로컬 경제 혁신모델 개발 등에 나선다.

한국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에 선보이고, 개최국의 국격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의 역사와 문화, 탄탄한 산업 기반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APEC 정상회의,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행사 준비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국비 확보에 힘써 정부 최종 예산안에 반영토록 한다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머드급 국제 외교 행사로, 대형 국제행사에 걸맞은 품위와 격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 시설 정비 등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국이 가진 문화의 힘을 녹여내 이번 행사를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 2025 APEC 도로명 바뀐다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내 도로명을 '한국관광1번로'로 변경한다.

시는 보문단지 내 육부촌 광장에서 보문 선착장 구간 도로 명칭을 '보문로'에서 '한국관광1번로'로 바꾼다.

해당 구간은 '보문로 424-1'에서 '보문로 424-34'까지 너비 16m, 연장 325m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주시에 도로면 변경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관광컨벤션산업 발상지인 육부촌의 국가 유산화와 보문관광단지 개장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2025 APEC 정상회의에 따른 보문단지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도 이유다.

도로명 변경을 위해 경주시는 지난달 15~29일까지 경주시보,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구간 내 주소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모두 받았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한 만큼, 다음 달 열릴 주소정보위원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보문단지 내 대한민국 관광역사의 상징성을 기념하는 도로명이 없었으나 이번 도로명 변경으로 상징성이 재조명될 것"이라며 "고유 지명이나 지역 특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로명 변경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청송청소년상담복지센터 캠페인

청송군은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1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스마트폰과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습관을 독려하고자 '스마트폰과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를 다짐하는 지문 스탬프를 찍어 약속 나무를 만들면 소정의 선물을 제공했다.

또한, 관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구시 달서구, 포항시, 영양군에서 방문한 2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과의존 예방 교육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심리 상담 △부모 교육 △가족치유캠프 연계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 청소년들은 미디어 매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영양웰컴꾸러미' 전달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영양군에 처음 전입오는 세대에게 "영양웰컴전입꾸러미"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5년 간 영양군 전입 사실이 없는 전입 세대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영양군 6개 읍·면사무소에서 첫 전입하는 세대에게 직접 전달된다.

영양 웰컴꾸러미는 영양관광홍보책자, 영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우리소식지 등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생활 및 정책정보 자료등을 웰컴키트와 함께 에코백에 담아 구성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웰컴꾸러미는 영양군 전입자들을 환영하면서 새롭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마련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깨끗하고 맑은 천혜의 자연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덕高 축구부 전국대회 우승… 42년 걸렸다

최호관 감독 지도력과 지자체의 지지과 후원으로 명문팀 성장

영덕고등학교 축구부가 강호 울산 학성고FC를 꺾고 1982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전국대회 왕좌에 올랐다.

지난 2일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제61회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영덕고는 울산 학성고FC를 3대2로 제압했다.

영덕고는 대회 조별 예선을 조 1위로 마친 후 16강전에서 경기 과천고를 2대0, 8강전에서 부산 동래고를 2대1로 완파했다.

준결승에선 지역 맞수인 경북자연과학고를 3대1 역전승으로 따돌려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는 지난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준우승에 오른 강호 울산 학성고FC로, 영덕고는 전반 7분과 28분에 연속 실점하며 열세를 보이다가 전반 39분에 1골로 추격하고 후반전에서 2골을 몰아쳐 극적인 대역전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2017년부터 영덕고 축구부를 이끈 최호관 감독은 인성과 태도를 중시하는 선수 육성 철학과 빼어난 지도력으로 2020년 제51회 부산MBC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준우승, 2021년 무학기 전국고교축구대회 준우승, 2022년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저·고학년부 동반 준우승 등 빼어난 성적을 거둬 영덕고를 강팀의 반열에 세웠다.

올해 들어선 2024 춘계 전국 고교축구대회 준우승,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경북대표 선발, 2024 대구·경북권역 전국 고등축구리그 전반기 우승을 차지해 한층 강력한 전력을 뽐내다가 이번 전국대회에서 숙원이던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려 최강의 고교 축구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영덕고가 명문 축구팀으로 거듭나는 데는 영덕군의 아낌없는 지원도 밑거름이 됐다.

영덕군은 초·중·고 축구부에 지원금을 보조해 왔고, 특히 민선 8기 들어서 지원 규모를 늘려 군기인 축구의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영덕군체육회와 영덕군축구협회의 후원, 자생적 후원단체인 영덕축구후원회의 재정적인 뒷받침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실제 영덕고 축구팀은 지난 6월 축구협회와 축구후원회 등 민간의 재정 후원으로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일본 고교 팀, 대학 팀, 프로 산하 팀과의 경기를 통해 경험을 쌓은 바 있다.

모교인 영덕고 축구팀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김광열 영덕군수는 우승 현장에서 "최호관 감독과 선수단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감격하며, "영덕고 축구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군 의회는 물론 교육지원청과 학교, 그리고 체육회, 축구협회, 축구후원회 등의 민간 단체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고등학교 축구팀은 오는 13일 안동대학교에서 경남 거창FC와 2024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조별 예선 첫 경기에 이어 10월엔 경남 김해시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상북도 고등부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 청소년 배드민턴 대표팀 전지훈련 유치

배드민턴 차세대 스타 양성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연일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드민턴의 성지라 불리는 청송군에서도 다음 세대의 스타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청송에서 시행되는 이번 전지훈련은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연령별 U-15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40여명이 참여하며, 9월에 있을 주니어선수권대회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은 우수한 배드민턴 체육시설을 바탕으로 맑은 공기와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육체·정신적 훈련을 할 수 있어 국내 학교 및 실업 팀들에게 인기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많은 팀들이 매년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해 관광, 숙박, 요식업 등 지역 경기에 큰 활력을 넣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매진하기 위해 산소카페 청송군을 방문하신 선수 및 지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각 선수들의 기량이 향

상되어 다가올 대회에서 노력의 결실을 얻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청도군, SNS 통해 이벤트 진행

청도군은 6일부터 31일까지 문화관광 공식 SNS를 통해 '이 구역 홍보왕은 나야 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청도군의 대표 여름 관광지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 증대와 SNS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행사 기간 중 청도의 주요 관광지,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직접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된다. 이후 문화관광 공식 SNS 채널 팔로우, 이벤트 게시글에 '좋아요' 및 게시글 작성 인증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54계단 껑충!

친근한 홍보의 힘으로 224위에서 70위로!

영양군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이 당초 224위(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70위(24년 7월 기준)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은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해 이를 조합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영양군은 특히 커뮤니티지수가 당초보다 7배가량 성장해 소비자 참여와 소통량,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대화량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은 올 3월 말부터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200명이 채 되지 않던 구독자 수가 7,300여 명으로 증가했고 평소 영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양을 알리는 기반을 마련, 딱딱한 군정홍보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진짜 영양을 보여주겠다는 영양적 사고로, SNS와 유튜브 등 친근한 정책홍보에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더해 영양군을 알리고 있다.

유튜브 공식 영양HB(www.youtube.com/@hot_yyg)채널은 다양한 콘텐츠를 패러디(문학의 낮, 현커 가능 등), 자체적인 기획(임용된 김에 영양일주, 홍보팀 시리즈, 드셔보셩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영양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권윤동 기자

울진군, 2024 음나무·초피나무 재배단지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울진군은 오는 16일까지 울진군 산림과(본관3층)에서 산림자원 확대 및 관내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2024년 음나무/초피나무 재배단지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금년 10월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며 총사업비는 각 사업별 음나무 4억2800만원, 초피나무 1억3300만원이며 보조 70%, 자부담 30%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임업인 또는 농업인 대상으로 사업면적 최소 1000㎡ 이상 전·답(임야·하천·도로·구거 등 제외)으로 한정한다.

단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에 포함 가능하며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 행정·소식 〉 알림 및 소식 〉 고시/공고 공고문 및 울진군 산림과(☎789-68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기자

무더위 날린 제35회 울릉 해변가요제 성황리 마쳐

한 여름밤 낭만 펼쳐…

울릉의 전략 축제로 자리 잡은 해변가요제가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한 여름밤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회단체 울릉청년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35회째를 맞아 지난 2~3일 양일간 저동항 야외특설무대서 한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초청가수 공연과 노래경연,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무제한 노래경연' 참가자들이 본선에 오르기 위해 저마다 열창으로 사투를 벌이는 모습과 여름 밤 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는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기에 충분했다.

김진학 울릉청년단장은 "무더운 여름 지역주민들과 울릉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청년단은 앞으로도 끝없이 도전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35회를 맞는 울릉 해변가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역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함께 해주는 청년단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6돌을 맞은 사회단체 울릉청년단은 전·현직 단원 등 8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온정을 베풀어 나가고 있다. 정윤환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성주 한여름 밤의 추억… 키즈 클래식 콘서트

캔들라이트 키즈 콘서트 공연 성료
가족 친화 콘텐츠 확충 저출생 극복

성주군은 지난 3일 성밖숲 일원에서 '트윙클 성주! 캔들라이트 키즈콘서트'를 개최해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 도약의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가족 친화 야간콘텐츠 확충으로 저출생 극복 및 지역소멸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별처럼 반짝이는' 대한민국 최초 군단위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 성주군은 이날 행사에 가족 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약 700여 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연 전 행사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성주군-성주군자율방범연합회 간 협약식 및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본공연에서는 수천 개의 LED 캔들이 수놓은 무대를 배경으로 퓨전 클래식 뮤지션 '도담앙상블'이 연주하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OST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낭만적인 한여름 밤의 추억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별처럼 반짝이는 성주군만의 색깔을 담은 야간관광 브랜드 '트윙클 성주(Twinkle Seongju)!'를 개발하였다. 앞으로 키즈·가족 친화 야간콘텐츠 확충으로 저출생 극복 및 지역소멸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 마지막해에 '군 단위' 최초로 선정된 성주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8월 한 달 간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야간관광 공식 SNS(인스타그램 @twinkle_seo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재훈 기자

성주 금수강산면 알리기 캠페인

성주군 금수강산면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아름다운 선바위 계곡 등에서 새로이 시작한 금수강산면 명칭변경을 홍보하고,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도 알리는 등 '금수강산면 알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금수강산은 우리가 알린다, 금수강산면의 힘찬 시작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지난 1일 탄생한 금수강산면 홍보와 선바위 계곡, 금수강산문화공원 야영장 등의 관광 명소 안내와 함께 맛집 소개 등도 했다.

금수강산면을 찾은 관광객에게 사계절이 아름다운 금수강산면 부채와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우리 면 뿐 아니라 성주군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도 홍보하는가 하면, 성주별고을운동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주썸머워터바캉스'홍보도 하면서 성주군 전역을 재방문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황희성 금수강산면장은 "주말임에도 금수강산면을 홍보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수강산면 관광 수준을 높이고 친절하고 바가지 요금이 없는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체류형 관광지이자 재방문 관광지로 정착시켜 지역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영천 폭염대비 찾아가는 안전교육

영천시 대창면은 5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폭염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노인일자리 근무자들이 건강을 지키고 혹시 모를 위험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 △자외선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복장 △정기적인 휴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실외활동 자제 및 휴식유도 △폭염대비 건강수칙 △보행자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제공됐다. 특히,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열사병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폭염에 대한 정보와 대처방법을 알게 돼 안심이 된다. 덕분에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의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최다선정

의성군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4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 공모사업에서 신규 주민사업체 6곳으로 전국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어 최대 5년간 국비 6억여원을 확보하게 됐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체험이나 식음, 기념품, 여행, 숙박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전국 주민사업체 151곳이 신청한 가운데 서류평가,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7월 31일에 24개 지역 최종52곳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했다.

의성군 지역의 선정 업체는 △㈜의성문화사(여행사) △레스큐 협동조합(여행사, 체험)△의성의 아침(숙박) △청백엽(체험, 식음)△아베크엉크레용(기념품) △A.S.A.(기념품) 총 6곳이다. 선정된 업체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상품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관광 활성화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각각 최대 5년간 1억 1000만원 이내에서 교육, 견학, 상담, 시험(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등 주민사업체 경영 여건에 따라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성장)로 맞춤형 지원을 하여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5년간의 관광두레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민사업체가 발굴·육성되어 지역관광을 이끄는 주민주도형 관광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교육복지안전망 가족 캠프

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간,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취약계층 4가정 12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교육복지안전망 동고동락 가족 캠프 '여름 안에서'를 실시했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가족 캠프는 상주교육지원청(중심)과 의성교육지원청(연계)이 연합해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친밀감을 증진해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프로그램은 여름 방학을 맞아 블루로드 트레킹, 해양 레이스, 水치유, 동해안 일출맞이 등 다양한 바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 간 대화, 보드게임 활동 등 가족별 활동 시간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하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성 기자

은어야 놀자! Let's go 봉화로! 제26회 봉화은어축제

화려한 폐막… 관광객 22만 명 다녀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은어야 놀자! Let's go 봉화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던 제26회 봉화은어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는 지난달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작년 수해 피해로 개최가 취소됐던 아픔을 딛고 만반의 준비를 해 맨손잡이 전 시간대 매진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라는 명성을 실감하게 했다.

봉화축제관광재단에 따르면 9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22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봉화군을 방문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로 1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줘 봉화 관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IPTV, 대형마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효과로 강력한 폭염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은어잡이 체험과 은어의 맛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며 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축제는 아이들을 위한 워터파크를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 모래놀이장, 친환경 쉼터존 등 폭염을 이겨 내기 위한 시설을 늘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주제 체험 외에도 봉화 홍보대사인 배우 이성민과 함께하는 뮤직 토크쇼,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스탠딩 워터캐논(물대포)을 활용한 레트로 콘서트 및 EDM 공연, 캐리와 친구들 뮤지컬공연, 트로트 콘서트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겨냥한 다채로운 테마형 공연을 기획해 낮부터 저녁까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화려한 볼

거리를 제공했다.

박현국 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봉화군수)는 "올해 축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봉화군민과 관계자,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화은어축제를 즐기러 온 관광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더욱더 발전 가능성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도심 속 휴양지' 영주 시원 축제, 여름날 추억 선사

체험거리 가득했던 '낮' 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긴 '밤' 축제

도심 속 휴양지 '2024영주 시원(ONE)축제'가 지난 4일 저녁 폐막공연에서 '영주(시)가 하나(one) 되는 시원한 화합의 장'을 연출하며 마무리됐다.

이날 뉴진스님이 진행한 '힙한영주' 공연은 축제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과 출연자가 함께 뛰고 즐기는 장관 속에 '축제 피서'의 마지막을 같이했다.

뒤이어 대미를 장식한 불꽃 쇼는 여름 밤하늘을 형형색색 빛으로 물들이며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9일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진행된 이번 축제는 피서객에게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을 선사했다.

개막 첫날부터 축제장이 마련된 문정둔치 일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일찌감치 가득 찼고, 가족 단위 나들이객은 쉼터에 앉아 물놀이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겼다.

낮 동안 축제장에는 57m 길이의 보트타기, 부표 건너기, 워터 슬라이드로 이뤄진 물놀이 어트렉션 미션, 물총 난장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색 체험 콘텐츠와 풀장, 에어바운스가 마련된 시원 어드벤처존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려는 인파가 줄을 이었다.

해가 지면 축제장이 공연장으로 변신해 하하&스컬, 노브레인 등이 출연한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선셋국악 콘서트, 비어버스킹, 영주 서천 강변가요제, EDM 파티 등 아름다운 서천 야경과 어우러진 다양한 공연이 연일 이어지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피서객들은 푸드트럭과 먹거리 부스 등이 이어진 취식존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공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2024영주 시원(ONE)축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도심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물놀이 체험과 여름밤을 수놓는 화려한 공연으로 참가자 모두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했다.

권지선(40세, 대구시 수성구) 씨는 "여름휴가로 친정에 왔다가 가까운 강변에 축제장이 있어 두 딸을 데리고 3번째 나왔다"며, "애들이 어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축제 덕분에 시원한 휴가 보내고 간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처음 개최된 시원 축제를 함께 하신 모든 분이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가셨길 바란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 마음껏 쉬고, 보고, 즐기는 대표 피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축제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하여 더 나은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제1회 영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올림픽 성황리 개최

영천시는 5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 이용 아동, 종사자, 내빈 등 230여 명과 함께 영천생활체육관에서 '제1회 영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올림픽'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영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첫 체육대회로, 캥거루 달리기, 색판뒤집기, 풍선기둥 세우기 등 참가한 아이들과 내빈들이 청백팀으로 나뉘어 큰 공을 굴리며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등 선의의 경쟁으로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며 행복하고 웃음가득한 추억을 만들었다.

마무리로 마술공연 및 댄스공연이 이어져 체육대회의 흥을 한층 더 돋웠다. 틈새 시간마다 열린 댄스 타임은 아이들이 흥과 끼, 열정을 발산하는 기회가 됐다.

최은하 기자

2년후 야인… 포항 첫 민선 3선 이강덕이 꿈꾸는 포항은?

후손들이 참 살기좋은 환동해 중심도시 건설 포스코와 동반성장…

민선시대 포항에서 첫 3선시장이 나왔다.

그가 바로 이강덕 포항시장이다.

3선 위업을 이룬 이강덕 시장이 10년째 시정을 이끌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민선 8기를 맞은 지자체들이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다.

높은 금리와 정부의 건전재정 속에 지역경제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고, 지방소멸이라는 큰 벽이 여전히 지방 중소도시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에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차전지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가진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 등 유치하면서 제2의 영일만 기적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기존 철길을 그린웨이 철길숲으로 조성, 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재임 10년간 포항시의 미래준비에 큰 업적을 쌓고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 포항 시장 10년 감회는

△민선6기 시장으로 당선돼 첫 출근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고 감개무량하다.

시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포항시 최초 3선 시장이라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기에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300여 직원들과 함께 매 순간 도시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의 초석을 다진 그간의 모든 성과 역시 위대한 시민 여러분덕분이라 생각하며 늘 가슴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 10년간의 성과를 말해 달라

△취임 이후 지난 10년 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시정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철강 일변도인 지역 산업 구조를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으로 다변화하는데 성공한 것을 첫 손에 꼽고 싶다.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0년간 방사광가속기,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와 같은 포항만의 우수한 R&D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산업 분야에서 총 16조원이 넘는 국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바이오 2개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 통과,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대형 국책 사업을 다수 유치해 기업 투자 촉진은 물론 신산업 초격차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역점 추진을 통해 회색 공업도시에서 녹색 생태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자부한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축구장 95개 면적인 총 67만㎡에 달하는 녹지 공간을 새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고 있다.

스페이스워크, 이가리 닻 전망대 등 신규 관광명소 확충과 드라마의 도시 포항 이미지 구축,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비롯한 주요 축제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문화관광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장착하며 지난해 역대 최다인 관광객 750만 명을 달성했다.

문화재단 출범과 법정 문화 도시 지정, 문화예술팩토리·석곡기념관 개관 등 시민 삶에 중요한 문화·예술 저변을 더욱 넓힌 바 있다.

어린이집 무상교육 등 경북 최초 3무(無) 교육복지 실현과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운영 등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할 맞춤형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교육과 관련해 포스텍의 글로컬대학30 선정에 이은 한동대의 선정 추진,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 등 지자체와 대학 등 교육 주체가 힘을 모아 교육 혁신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

KTX, SRT 고속철 노선 개통 등 도시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며 도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그린웨이 도시 건설 견해는?

△취임 당시 포항은 철강이 전체 수출의 9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산업구조의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철강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를 겪으며 제철산업 하나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고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이차전지를 미래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본격 육성하기 시작했다.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기업들로부터 지난 한해에만 5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비롯해 2027년까지 1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

지난해 이차전지의 수출 비중이 약 40%에 육박하면서 산업 다변화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올해 기회발전특구라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대형 국책 사업에 선정되면서 우리시는 이를 극대화할 후속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초격차의 생산 인프라 및 연구 개발·인재 양성 시스템을 확보해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 생산과 매출액 100조원의 목표를 달성해 '전지보국'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취임 당시는 고착화된 회색 산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녹색생태도시 대전환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기도 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며 차량 통행 등 '기능과 효율 중심'에 매몰돼 있던 도시구조를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을 중심 가치'에 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로 변모시키고자 노력했다.

철길숲을 필두로 도시숲, 둘레길, 맨발로 등 축구장 95개 면적인 67만㎡의 녹색 인프라를 확충해 탄소 흡수는 물론 철강공단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유입을 차단해 도심내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철길숲 등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생활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기며 건강한 웃음꽃을 피우는 시민들을 볼 때면 저 또한 더없는 행복감을 느낀다.

해양, 산림, 도심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이자 해양관광도시인 포항의 특성을 살려 센트럴(도심)·오션(해양)·에코(산림) 그린웨이의 3대축으로 세부사업들을 촘촘하게 이어가면서 시민을 위한 건강한 녹색 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

▣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는 이른바 캐즘(Chasm: 대중화 직전 일시적 수요 정체) 단계에 진입했다는 지표가 나오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차전지의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아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 추진으로 '전지보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우선은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이어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용수·전기 공급 등 핵심 인프라 조기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폭넓은 시야에서 포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협업을 통한 글로벌 연구소 설립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

양극·음극재 등 핵심 소재 생산 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 전기차 기업 유치 등 산업 영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형 운송수단인 전기선박, E-모빌리티, UAM 등 전기차 이외의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며 이차전지 산업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 지역발전에 따른 포스코와 관계 유지는?

△국민기업 포스코는 지역과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난 50여 년 간 포항과 함께 성장해왔다.

다만 2년 전 지주사 서울 설치 문제를 시작으로 포스코가 더 이상 국민기업이 아니라는 정체성 부정 이슈 등으로 지역 사회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올해 3월 장인화 회장 취임을 계기로 포항시와 포스코 그룹 간 주요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현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포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장인화 회장의 리더십 아래 포스코가 지역 사회와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동반 성장하며 상생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방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같은 기업 투자 유치모멘텀을 지속 마련하면서 포스코그룹이 포항 본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이 시장이 꿈꾸는 포항은?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서 행복과 풍요를 누리며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배터리와 수소·바이오는 물론 AI·빅데이터·로봇 등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으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지원 인프라를 더욱 늘리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순환 구조의 혁신산업 생태계를 가진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포스텍 의대+스마트병원' 설립을 비롯해 영일만대교 건설,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 등 도시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다.

▣ 2년 후 야인으로 돌아간다 계획은?

△지난 10년간 시민들과 함께 많은 의미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왔지만 아직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지금은 임기 이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게 사실이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의 가속화,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엄중한 시기인만큼 남은 임기동안은 오로지 지속가능한 포항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시정만 바라볼 생각이다.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들이 포항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

다만 임기 이후에 저에게 시민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소명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지난 10년 간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으로 포항은 큰 변화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해법을 찾아 잘사는 지방도시, 신지방시대 희망을 제시하는 균형발전의 롤모델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시의 여정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

정창명 기자